

A Korean Version of "Pisano Puzzle"

한국 바이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

2024.06.25

김석관 선임연구위원 (과학기술정책연구원)

Pisano Puzzle: 아래와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의 바이오 섹터가 유지되고 있다.

- 1) Amgen을 제외하고 나스닥 상장 바이오텍의 최근 30년간 영업이익 합계는 마이너스이다.
 - 2) 바이오텍의 신약 개발 효율성은 대형 제약사들보다 우수하지 않다.
 - 3) 바이오텍은 10년 이상 적자를 버틸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지만, 대부분 펀드 기한은 10년 이내로 제한된다.
 - 4) 바이오텍의 가치는 주로 임상시험 중인 자산으로 평가되나,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외부의 해석은 그 한계를 가진다.
- ⇒ 이에 따라, 미국 바이오텍 섹터는 투자, 기업 지배구조, 시장 감시 등에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며, 기존 대형 제약사가 바이오 스타트업을 인수하거나 전략적 투자를 통해 근접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.

반면, 한국은 ...

한국은 투자자 보호, 기업 지배구조, 코스닥 상장제도, 공시제도, 애널리스트 리포트 관행 등에서 미국 나스닥보다 더 열악한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다. 한국 바이오 섹터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제들이 존재하는가?



김 석 관
선임연구위원

(과학기술정책연구원)

Area of Expertise : 기술혁신 정책

-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물리학(학사), 과학철학(석사), 과학기술정책학(박사)을 공부했고,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28년째 기술혁신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.
- 처음에는 바이오 산업 중심의 혁신 연구를 하다가, 점차 오픈 이노베이션, 스타트업 생태계, 벤처캐피탈 등 주제별 연구로 옮겼으며, 현재는 한국 성장 모델과 혁신학 정체성 같은 거시적·이론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.

Experience

과학기술정책연구원(1999~현재) : 선임연구위원

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(1997~1999) : 연구원

Education

박사,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(과학기술정책 전공, 문학박사, 2011)

석사,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(과학철학 전공, 이학석사, 1995)

학사,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(이학사, 1991)